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7 "우리도 뛴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의 직원들이 4일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사 석유제품 추방 될 때까지 시민과 한마음 질주 계속된다"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마라톤으로 다져진 건강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석유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우뚝 선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지사 직원들도 제 43회 3·1절 광주일보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힘찬 질주를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20대의 곽대송(29)사원부터 50대의 김영규(55) 검사팀장까지 전 직원 16명이 참가해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지난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사내 분위기가 부쩍 좋아진 것을 계기로 이번에도 16명의 전직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순환근무로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지난해 야외에서 함께 마라톤을 하면서 사내 분위기를 돈독히 다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중호 지사장 등 전직원 16명 참가

업무 특성상 현장에 나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이 필수인 직원들은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효과도 보았다.

가족까지 대동하고 경기장에 나설 예정인 신희승(36) 대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 신세를 지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마라톤을 시작해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마라톤을 뛰면서 무자년 새해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미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원 신기호(31)씨는 "지난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 퇴근 후 헬스클럽을 찾는 등 올 한해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마라톤 참가를 계기로 꾸준히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이미지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 사랑받는 석유품질관리 기관" 다짐

직원들은 올 한해 개인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위해서도 해야할 일이 많다.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를 치솟는 등 유가 급등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올바른 석유 사용과 제품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등 직원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이들은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건강을 다지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유사석유사용자 처벌에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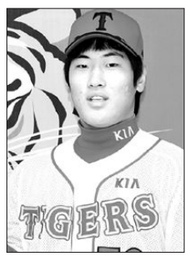
김중호(52)지사장은 "석유품질관리원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국민의 건전한 석유제품 사용을 위해 24년간 쉼없이 달려왔다"며 "마라톤을 통해 직원들의 인화와 단결심을 배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밖으로는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년간 명맥 끊겼던 신인왕

"올시즌 우리가 되찾는다"

KIA 투수 전태현·타자 나지완 당찬 포부


〈전태현〉

〈나지완〉

천재적인 야구감각과 빠른 발로 프로야구계를 풍미했던 '재간둥이' 이순철은 입단 첫해인 1985년, 99경기에 출전해 0.304의 타율과 12홈런·50타점·31 도루로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이순철은 KIA 타이거즈의 첫 신인왕이자 마지막 신인왕으로 남아있다.

KIA는 전신 해태시절 9번의 우승과 6명의 MVP를 배출한 야구 명가다. 그러나 신인왕과는 인연이 없었다.

1989년 데뷔 첫해 15승을 챙겼던 '잠수함' 이강철은 태평양의 무명 투수 박정현의 깜짝 19승에 신인왕을 놓쳤다.

'야구천재' 이종범은 1993년 양준혁의 그늘에 묻혔고, 2002년과 2006년 '초특급 신인' 김진우와 한기주는 각각 조용준과 류현진에게 신인상을 양보해야 했다.

명맥이 끊겨온 신인왕을 위해 올 시즌 KIA의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는 투수 전태현과 타자 나지완.

슬라이드와 커브가 주무기인 사이드암 투수 전태현(19·우투우타)은 1차 지명으로 KIA의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있었던 마무리 훈련에서는 평소 존경하던 이강철 코치의 지도로 폼을 교정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고전하다 컨디션을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지난 1일 2군 선수단과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신인왕을 위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차 1번 지명을 받은 야수 나지완(22·우투우타)은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제 37회 야구월드컵에서 프로 선수들을 제치고 4번 타자로 나서 맹활약을 펼쳤다.

전국대학 춘계리그 타점상과 홈런상 수상자기도 한 나지완은 배팅 파워와 승부근성이 뛰어나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호, 최희섭의 좌타거포를 뒷받침해줄 우타거포가 절실한 KIA는 나지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무에서 제대한 이영수와 류재원 등 중고신인도 신인왕을 향한 질주에 가세하게 된다. KBO규약상 5시즌 이내, 60타석 이내를 뛴 선수들에게는 신인자격이 주어진다. 수비가 취약하긴 하지만 2군 리그 4할 타자로 명성을 날렸던 이영수는 발데스, 유용목 등 수비위주로 내야를 정비한 조범현 사단에서 언제든 공격을 향한 조커로 나설 수 있다. 외야수 류재원도 공격력을 바탕으로 200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생순' 우리에게도 4일 경북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08 안동핸드볼 큰잔치 용인시청-대구시청전에서 용인시청 남현화(11번)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용인시청이 27-24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8구단 센테니얼 초대 감독에 이광환씨

이광환(60·사진) 전 LG트윈스 감독(현 KBO육성위원장)이 프로야구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의 초대 사령탑을 맡아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에 나선 투자회사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는 4일 이광한 전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자율야구'로 유명한 이광환 내정자는 1989년 OB(현 두산)를 시작으로 LG, 한화 등 세 팀에서 감독을 역임했다.

센테니얼은 현대의 마지막 사령탑을 맡았던 김시진 감독에게는 '계약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예정되어 있던 메인스폰서 발표는 하루 연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중계

5일 (화)

▲핸드볼 큰잔치 여자부 결승(13 : 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KTF : 삼성〉(18 : 50·SBS스포츠·XPORTS)

▲07/08 V리그 여자부〈KT&G : 도로공사〉(16 : 30), 남자부〈한국전력 : 상무〉(19 : 00·KBS N SPORTS)

6일 (수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 : 현대캐피탈〉(13 : 30), 여자부〈현대건설 : GS칼텍스〉(16 : 00·KBS N SPORTS)